

## 도은 이승인의 불교시 一考察

김 경 미\*

### <目次>

I. 머리말	1. 탈속추구의 지향
II. 도은의 불교관	2. 禪趣의 경향과 청정의 세계
III. 시세계	IV. 맺음말

### <국문 초록>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으므로 사회의 전 분야에서 불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불교의 영향력은 쉽게 약해지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통해 역불정책을 고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려 말 도은 이승인은 유학을 공부한 사대부였으나,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인은 어릴 때부터 매일 아침 독경을 하는 어머니의 훈육을 받으며 자랐고, 사찰에서 공부를 했으며, 승려와 깊은 교분을 쌓으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는 이승인의 문학 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며, 『도은집』에 수록된 적지 않은 양의 불교시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이승인은 고려왕조를 부지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던 정적이자 친구인 정도전의 계략으로 46세에 죽임을 당한다. 혼란한 정국의 중심에 있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므로 문학작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다. 『도은집』에 수록된 시는 337제 446수이고, 그 중 불교시는 70여수가량이다. 이 역시 많지 않은 양이지만, 시로 명성이 있던 이승인의 불교시를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수료 / dkdk-77@hanmail.net

고찰해 보는 일은, 그의 시와 사상의 전모를 온전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른바 ‘신진사대부’로 대변되는 당대 지식인의 사상과 문학창작 경향을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은집』에 수록된 이숭인의 불교시는 승려와의 교유시, 승려의 시권에 쓴 시, 사찰의 경치를 읊으면서 선취를 드러낸 시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품에서 도은이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는 사이 갈등해소의 방편으로 ‘탈속의지를 표출한 시’, 순수하게 불교자체에 침잠하여 ‘교리를 드러내거나 불교의 청정한 세계를 읊은 시’로 나누어 살펴으로써 이숭인의 불교관과 시에 녹아든 불교의 흔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려 후기는 禪이 불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숭인의 불교시에도 禪적인 취향이 드러나고 있다. 몇 작품에서 불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불교의 공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에 머물렀으며,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불교 자체에는 시종 호감을 지니고 불교의 교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현실 갈등 상황을 탈속의 추구 또는 승려의 맑은 정신세계를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주제어】 도은, 이숭인, 고려 말 한시, 도학자, 도은의 불교시, 탈속시

## I. 머리말

陶隱 李崇仁(1347~1392)은 중국의 정권이 元에서 明으로 교체되는 시기, 고려의 정치계가 친원파와 친명파로 나누어지는 혼란한 정국을 거쳐 고려의 멸망 직전까지 활동했던 학자이며 정치가다. 이숭인은 대외적으로 원나라를 배척하고 明과 가까이하자는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왕조 건국 세력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고려왕조를 부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이숭인의 정치적 견해는 그의 시문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송인은 1392년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같은 정몽주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 원에게 제거 당한 후, 정적이자 친구였던 鄭道傳의 사주를 받은 黃居正에게 杖殺당하였다. 4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무엇보다 혼란한 정국의 중심에서 활동했으므로 이송인은 337제 446수의 많지 않은 양의 시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이송인은 당대에 시로 명성을 떨친 작가였으므로 그의 문학적 성취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송인에 대한 연구는 金台俊이 『朝鮮漢文學史』<sup>1)</sup>에서 그의 문학을 다루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송인의 생애와 문학, 성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시문학<sup>2)</sup>, 이송인 시의 품격<sup>3)</sup>, 樓亭詩<sup>4)</sup>, 挽詩<sup>5)</sup>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송인은 신학문인 성리학을 공부했고, 조예가 깊었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성리학의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필연적으로 그의 문학 연구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고, 신학문인 성리학이 수입되었지만, 성리학이 곧바로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조선이 여러 대를 걸쳐 억불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교가 사회의 基底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 1)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조선어문학회, 1930.
- 2) 정중대, 「이송인의 한시에 대하여」, 『선청어문』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9, pp.431-468.  
임종욱, 「도은 이송인의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연구』11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8, pp.321-349.
- 3) 최광범, 「도은 이송인 시의 품격」, 『어문논집』44, 안암어문학회, 2001, pp.125-157.  
양진조, 「도은 이송인의 시세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하정승, 『도은 이송인 시의 품격 연구』, 태학사, 2001.
- 4) 이정화, 「도은 이송인의 누정시연구」, 『한국사상과 문화』제3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pp.54-75.
- 5) 하정승, 「이송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한국한시연구』21집, 한국한시학회, 2013, pp.113-151.

이승인 또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의 시 446수 중 약 70수는 불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이다.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단일 주제로 적다고 할 수 없는 비율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 지점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승인이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이지만, 그의 사상과 시에 불교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의 삶과 문학의 전모를 온전히 드러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승인의 불교시는 그의 시문학 전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몇 작품이 다루어졌고<sup>6)</sup>, 이승인의 불교시를 승려와의 교유시로 제한하여 연구한 논문이<sup>7)</sup>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불교시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인의 불교시는 승려와의 교유시, 승려의 시권에 쓴 시, 사찰의 경치를 읊으며 선취를 드러낸 시로 우선 이루어져있는데, 이 작품들에서 현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탈속을 추구한 시, 불교의 교리나 불교의 청정한 세계관을 드러낸 시로 나누어 그 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승인의 불교관과 시 속에 함유된 불교적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이승인의 시와 삶에 불교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텍스트는 『韓國文集叢刊』<sup>6)</sup>에 수록된 『陶隱集』이며, 시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나온 『국역 도은집』<sup>8)</sup>의 번역을 따르되 서술의 편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6) 양진조, 「도은 이승인의 시세계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1. 산사를 배경으로 한 시와 승려와의 교유시 몇 편을 다루었다.

임종욱, 「도은 이승인의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연구』11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8. 승려와의 교유시 몇 편을 다루었다.

7) 김재욱(제1저자), 송혁기(교신저자), 「도은 이승인의 佛敎詩 연구-승려와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pp.195-220.

8) 이승인 지음, 이상현 옮김,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 II. 도은의 불교관

본격적으로 이송인의 불교시를 보기에 앞서, 고려 말 성리학이 유입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의 불교에 대한 관점 혹은 태도가 어떠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고려가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수입한 것은 13세기 말이다, 안향에 의해서 수입된 성리학은 白頤正·權溥·禹倬 등에 의해 초보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李齊賢에 의하여 經學, 文章學과 性理學의 會通이 이루어진다<sup>9)</sup> 이제현·이곡·이인복 등의 훈도를 받은 이색·이송인·정몽주 등의 신진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했다. 정도전과 같은 사람은 성리학을 새 시대를 여는 사상의 조류로 인식하고, 불교를 배척 했고, 목은 이색이나 이송인은 성리학을 수용하면서도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이와 같은 두 성향으로 당시 지식인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도은집』, 「先大夫人行狀」<sup>10)</sup>에 “도은의 어머니는 새벽에 닭이 처음 울면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서 단정히 앉아 『金剛般若經』과 『華嚴經』 「행원품」을 외우는 것으로 일정을 삼곤 하셨다. [鷄初鳴 盥櫛而坐 誦金剛般若經華嚴行願品 爲日程焉]”고 한 것으로 보아 이송인은 불심 이 깊은 어머니의 훈육을 받고 자랐으며, 자연스레 불교를 접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송인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목은 이색과 같은 문인 또한 그러하였고, 불교를 배척했던 정도전이나 성리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정몽주까지도 승려와 친분을 지니고 살았던 것으로 보면, 그만큼 고려 사회 전반에 불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송인은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시에 성리학과 불교의 관점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이는 아래의 「題倫上人絕磻松風軒卷」<sup>11)</sup>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9) 金忠烈, 『高麗儒學史』,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p.170.

10) 『陶隱集』 권5, 「先大夫人行狀」, p.542.

11) 『陶隱集』 권1, 「題倫上人絕磻松風軒卷」, p.33.

冷冷絕澗水	차디찬 절벽 아래 시냇물
落此松風軒	떨어지네 이곳 송풍헌으로
澗水源流活	시냇물은 원류라서 활기차고
松風晝夜喧	솔바람은 밤낮으로 세차게 부네
初疑奏天樂	처음엔 천상 음악인가 싶더니
復似韶濩音	다시 들으니 소호 음악과 비슷하구나
上人跏趺坐	스님께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和以沒絃琴	줄 없는 거문고로 화답을 하시네

頤聯의 ‘澗水源流活’은 송나라 주희의 『觀書有感』<sup>12)</sup>에 ‘근원에서 생수가 솟아난다[爲有源頭活水來]’고 한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솟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면 수양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인데, 이 작품에서는 그와 같은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한다. 이어지는 구절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은 자연 현상이면서, 수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 승려인 윤절간이나 사대부인 이송인은 다른 길을 가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頤聯의 서술 역시 성리학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송풍헌 절벽아래 시냇물 떨어지는 소리 솔바람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천상의 음악을 자연의 지극한 경지로 여겨서 불교적 세계로 표현하였다. 음악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천상’과 ‘음악’은 불법의 온전한 구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송인은 이를 ‘韶濩의 음악과 비슷하다고 하였다.韶는 순임금의 음악이며,濩는 殷나라 湯王의 음악이다. 둘 모두 유가의 이상적인 군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이송인은 이들을 등장시키면서 유가적 이상의 완성이 불법의 구현과 다르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자신은 시를 써서 윤절간에게 속내를 보인다. 승려인 윤절간은 ‘줄 없는

12) 『宋詩鈔』권60, “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

거문고'로 화답한다. 以心傳心, 不立文字를 내세우는 禪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숭인은 성리학과 불교에 대해 굳이 우열을 두지 않고, 둘을 조화하려 하였다.

한편,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작품도 있다.

聞道旃檀木	듣건대 전단 향나무 조각 불상이
浮來自闕賓	서역의 계빈 땅서 떠내려 왔다고
土風尊像教	이 땅 풍속 불교를 숭상하여서
香火化都人	향불 피워 도성 사람들 유인했다네
邪說誠難息	사설 참으로 없앨수 없어
斯文久未伸	사문을 오래도록 펼 수 없었지
今來閉虛殿	지금은 텅 빈 채 폐쇄된 전각
恐是沒兵塵	아마도 전쟁 먼지 뒤덮혔을걸 <sup>13)</sup>

首聯은 이숭인이 전해들은 말이라고 했지만, 비판 의식 없이 불교를 맹신하는 사회 풍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怪力亂神’을 배격하는 유가적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전설은 미신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작품 전체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 승려들은 불교의 본고장 서역에서 온 향이라는 말로 사람을 속인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므로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버린다. 사대부인 이숭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설이고, 유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일 뿐이다.

尾聯의 서술은 이와 같은 사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토록 영험이 있다면 전각은 폐쇄되지 않아야 하고, 전란에도 온전히 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숭인은 이 서술을 통해 불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회 전반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불교를 대체할 사상으로 유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3) 『陶隱集』권2, 「題旃檀殿 後爲僧漫去」, p.109.

아래의 작품도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念念循環無盡期	염불하며 끝없이 돌리는 염주
茶房酒肆也相隨	다방이든 술집이든 늘 지니고 다니누나
問師百八彌陀佛	스님에게 물어보리 아미타불 백팔분 중에
那箇彌陀解道師	몇 번째 아미타부처님을 대장 삼을지 <sup>14)</sup>

염주는 염불을 하는 도구이며 수행의 도구로 스님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수행에 정진해야 할 스님들이 다방과 술집으로 다니고 있다. 이송인은 이 두 구를 통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당시 불교 교단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이송인이 비판한 불교는 ‘불교자체’가 아니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불교 교단이며, 맹목적으로 불교를 따르는 사회 풍조라는 사실이다. 이송인의 불교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교의 긍정적인 의식은 버리지 않았으며, 그 자신 불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송인의 불교에 대한 비판은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崧陽宮殿綵雲邊	송도의 궁전에 오색구름 두른 가에
龍象潮音振法筵	용상의 부처말씀 법연에 진동하네
海藏傳將開大寶	대장경을 봉헌하여 보배로운 세계 열고
琅函繙閱結良緣	불경을 열람하며 좋은 인연 맺었노라
光明普照三千界	부처 광명 삼천 세계 온통 두루 비추고
曆數相承五百年	하늘의 운수는 오백 년을 서로 이어 계승했네
初政冀蒙方便力	처음 정사 불보살의 방편에 힘을 입어
更教朝野得安眠	다시 조야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sup>15)</sup>

우왕의 분부를 받들어 지은 시이다. 불교 국가였기에 조정에서 불교를 중요

14) 『陶隱集』권3, 「戲賦一師念珠 百八顆」, p.365.

15) 『陶隱集』권2, 「藏經音讚詩 乙卯春奉教製」, p.241.

시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궁전이 綵雲속에 있다고 표현하여 시각적 화려함을 그리고, 참석한 승려들의 독경 소리로 청각을 자극하면서 이 법회는 매우 성스럽고 성대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龍象’은 고승을 뜻하며, ‘潮音’은 불보살의 이름다운 음성을 뜻한다. 삼천세계는 불교의 광활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시 전체에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용어를 시어로 사용하여 고려는 불법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 그 중에서도 국왕은 그 불법을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이송인의 불교를 보는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듯 朝野에도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하로서 호국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이 시는 대장경 독송을 찬미한 御製詩로 왕의 불교적 성향에 맞추어져 지어졌으나 자신의 불교적 의식도 잘 드러내면서 신하로서의 면모도 엿보인다. 또한 불교의식 속에 유교적 색채가 드러나 보인다.

峒師與巖遁	경스님과 암둔 선생 이 두 사람은
俱是愛名山	모두가 명산을 좋아하는 분
說法天花落	설법에 하늘 꽃이 떨어지고
觀空世界閑	공의 이치 관하면 세계 고요해 <sup>16)</sup>

<후략>

이 작품에서는 불교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다. 부처가 설법을 할 때 하늘에서 만다라화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시로 읊었으며 불교의 空 사상을 알아차리면 정신세계가 한가로와 진다는 것이다. 경스님과 암둔박선생이 도를 깨친 것을 칭송하면서 이송인 자신도 알아차렸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도은은 그런 모습의 불교 경지에 접근하여 정신세계가 고요해지는 데까지 이르르고자하여 불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였다.

16) 『陶隱集』권2, 「題峒師卷仍戲巖遁朴先生 朴免」, p.174.

功德山僧號覺禪	공덕산 승려는 각빈이라하는데
山中勝事說生津	산중의 멋진 경관 침 튀기며 얘기하길
一間蘭若元非世	한 칸의 절간이 원래 세속 무관해서
四箇如來最是神	네 분의 여래가 가장 신령스럽단다. <sup>17)</sup>

<후략>

복을 구하려는 자들이 많이 와서 공덕산이라 불린 그 산의 큰 바위에 여래상 네 개가 새겨져있다. 이 여래가 가장 영험이 있다고 하였다. 승려의 말을 빌려 쓴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상은 도은도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불교의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있다.

이승인은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불교를 받아들였고, 불교 교단의 폐해에 있어서는 비판하였으나, 수양의 방편으로서의 불교를 긍정하였다. 따라서 이승인은 극단적인 배불론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유불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고 문학작품 속에서 이러한 관점들이 잘 드러나 있다.

### III. 시세계

이승인은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고 벼슬을 하다가 사회적 상황에 의해 벼슬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속세와 떨어져 있는 사찰을 찾게 되었다. 불우한 상황을 맞이한 그는 사찰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하였다. 나아가 속세를 떠나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으며, 세상 사람들이 지닌 입신에 대한 열망이나 물욕을 버리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탈속으로의 지향은 불교사만이 지닌 특징은 아니다. 도가에서는 신선을 추구하고, 유가에서는 공을 이룬 이후에 귀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만 이승인은 도가나 유가보다는 불교적인 탈속을 지향하

17) 『陶隱集』권2, 「送禪上人還山」, p.261.

고 있다. 이 바탕에는 불교를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송인 자신이 지닌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관점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고려말의 정치적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이송인은 관료로서의 입지도 더욱 어렵게 되어 벼슬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불우한 상황을 더욱 많이 겪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현실 상황을 떠나 세상을 등지고 산사로 찾아들고 승려들과의 교유가 잦아지면서 그의 시에 불교적 색채가 더욱 농후하게 드러난다.

### 1. 탈속추구의 지향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송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불교에 의지함으로써 마음을 달래게 되었다. 이즈음에 지은 작품에서는 탈속을 지향하되, 자의에 의한 탈속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절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 의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無才堪世用	세상의 쓰임이 될 만한 재주도 없거니와
絕意鬪年芳	고운 봄꽃을 다툰 생각도 전혀 없소이다
藥圃風初暖	약포에 바람결이 따스해지기 시작하고
書窓日漸長	서창에 햇빛이 점차로 길어지는 시절
要僧分水石	스님 따라 노닐며 승경을 나눠 갖고
見客置壺觴	나그네를 만나면 술자리도 갖는다오
寫得閑居賦	閑居賦(한거부) 하나라도 베껴 써서
聊因扁草堂	애오라지 초당에 걸어놓을까 하오 18)

首聯에서는 이송인 자신이 세상의 쓰임이 될 만한 재주가 없다는 자조적 한탄으로 시작하여 고운 봄꽃을 다툰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고운 봄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벼슬이 아닐까 한다. 재주가 없으니 벼슬자리

18) 『陶隱集』권2, 「山居卽事 次民望韻」, p.165.

를 다룰 이유가 없다. ‘絕意’라고 하여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頤聯과 顛聯에서는 속세와 단절한 이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봄바람이 따뜻해지며 해도 점점 길어지는 계절이 오면 스님 따라 편히 유람하며 즐기고, 쯤나라 潘岳이 지은 『閑居賦』를 베껴 초당에 걸어 놓고 싶다고 하였다. 속세에서는 벼슬을 중시하지만, 이곳에서는 ‘한가함’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과 자꾸 어긋나서 벼슬을 그만두고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의지는 남악의 총 선사 방에 제한 시<sup>19</sup>)와 현암에게 봉증한 시<sup>20</sup>)에서 각각 ‘休官便此還’, ‘何時謝簪紱 香火共禪龕’이라 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선사의 방으로 오고 싶다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溪上青山山上松	시내 위엔 청산 산 위엔 소나무
禪師方丈最高峯	선사의 방장은 가장 높은 봉우리
天仙禮拜却歸去	돌아가서 천상의 선인에게 예배하고
坐蹠人寰如蠟封	개밋둑 같은 인간 세상 앉아서 굽어보리 <sup>21)</sup>

푸른 산 위의 사철 푸른 소나무를 통해 이해득실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속세 사람과는 다른 승려의 기상을 드러내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승려의 거처가 있다고 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는 속세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승려는 높은 수준의 정신경계를 지닌 사람임을 칭송하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본 속세는 개밋둑과 같이 보잘 것 없다. 따라서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 역시 보잘 것 없고, 부질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껏 개밋둑 속에 살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이승인은 이 시를 통해

19) 『陶隱集』권2, 「題南嶽聰禪師房 次林先生韻」, p.129.

20) 『陶隱集』권2, 「奉贈顯菴」, p.188.

21) 『陶隱集』권3, 「送僧」, p.328.

승려의 높은 정신경계를 찬미하면서 자신 역시 그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짧은 절구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架巖開數間屋	바위에 걸쳐 엮은 몇 칸의 초옥
面壁有一箇僧	벽 보고 참선하는 스님 한 분
洞裏清泉白石	굴짜 안엔 맑은 물에 흰 바위
軒前古木蒼藤	처마 앞엔 고목에 푸른 등덩굴

詩思奇奇怪怪	시상은 기괴하게 펼쳐지고
宦情莫莫休休	벼슬 생각은 접은 지 이미 오래
手裏携拄杖子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서
尋僧直到山頭	스님 찾아 곧장 산꼭대기로 <sup>22)</sup>

첫째 수에는 암자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바위 위에 집을 시렁처럼 얹어 놓았다고 하였으니 이 암자는 사람의 힘을 최소화한, 자연스럽게 주변과 조화되는 조출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엔 인위적으로 꾸민 것이 없다. 이런 곳에 앉아 한 승려가 참선을 하고 있다. 어떤 화두를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승려의 정신경계는 매우 맑고 깨끗하다. 맑은 물과 깨끗한 바위는 암자의 풍경이면서 승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할 것이다. 처마 앞에 있는 고목은 시간의 무한함을 알려주는 소재이면서 승려가 지닌 도력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은 오랜 시간 세속과 단절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둘째 수는 이곳을 찾아온 이승인의 감회로 이루어져 있다. 세속과 단절된 곳에 있으니 벼슬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벼슬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세속의 일에 미련이 있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렇게 읽으면 轉句와 結句의 이승인의 행동은 현실과 절연하고자 하는 의지로 드러난다. ‘山頭’는 산꼭대기면서 궁극적 깨달음이 있는 높은 정신경계라고 볼 수 있다. 이승인은 아직 산꼭대기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여전히 자신은

22) 『陶隱集』권3, 「題明遠菴」, p.448.

몸은 탈 속세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이처럼 이승인은 불교 혹은 승려에 의지해서 정신의 자유마저 얻고 싶어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且問潤雲老  
飄然何處歸  
孤征猿鶴導  
舊隱薜蘿垂  
漠漠塵區隘  
紛紛世事違  
吾生亦淡蕩  
只愧拂衣遲

물어봅시다 윤운 노스님  
표연히 어디로 돌아가는지  
학과 원숭이 인도하는 외로운 산길  
벽라 덩굴 뒤엉킨 옛 은거지라오  
티끌 자욱한 비좁은 이 속세에서  
세상사 분분하게 어긋나는데  
내 삶 또한 담박하게 살아왔지만  
홀홀 떨치지 못하는 것 부끄럽기만<sup>23)</sup>

그 옛날 부처가 살아 있을 때에는 수행자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거처를 정해 머물게 되면 집착이 생긴다는 것이다. 윤운이라는 승려도 마찬가지다. 이승인은 모였다 흩어졌다하며 흘러가는 구름 같은 윤운에게 정처 없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묻는다. 답은 이어지는 함련에 나타난다. 3구에 등장하는 학은 고결함을 나타내며, 원숭이는 불가에서 잡신을 쫓거나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학과 원숭이는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동물이므로, 고요한 자연 풍광을 그럴 때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승려인 윤운의 내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속세에 잠시 머물다 스님은 다시 은거지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승인은 먼지 자욱하고 좁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은 고려왕조를 부지하고 싶으나, 현실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 현실을 개선하고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고려 조정의 신하이고, 세속인이기 때문이다. 탈속을 지향하면서도 속세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떠나는 스님의 모습과 대비시켜 잘 드러내었다.

23) 『陶隱集』권2, 「送潤雲老上人還山」, p.98.

靑山疊疊水重重	푸른 산 첩첩이요 굽이굽이 물 흐르는 곳
一箇老僧携短筇	노스님 한 분 짧은 지팡이 짚고 가네
他日相逢何處是	다른 날 서로 만날 그 곳이 어딘가
淸風榻畔數栽松	맑은 바람 걸상 주변 소나무 몇 그루 옆 <sup>24)</sup>

靑山이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산중은 세속의 먼지가 티끌만큼도 없는 청정 무구한 세계이다. 노스님이라는 시어에서 수행의 깊이가 느껴진다. 장구한 시간 수행자인 스님과 이승인은 다른 곳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승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수행자가 있는 곳이다. 그 곳은 화려하게 장엄된 인위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청정한 곳이다.

이승인은 삭막한 현실에서 벗어나 한가함과 청정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했다. 승려와 주고받은 시에서 보면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탈속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승인은 고려왕 조를 부지하려는 사대부로서의 의지가 탈속을 지향하는 그것보다는 다소 강했으므로 끝내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다. 탈속을 하고자하여 불교적 세계를 긍정하고 지향하였으되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 2. 禪趣的 경향과 청정의 세계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로서의 이승인은 그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교를 배척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불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인뿐만 아니라 친불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대부들의 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겠으나, 그의 시 중에는 불교적 색채를 띠는 시가 많음이 보인다.

이에 본 단원에서는 이승인의 불교시 중에서 禪趣가 드러나는 작품을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고려 말기에는 선종이 득세했기에 이승인 역시 이런 분위기를

24) 『陶隱集』권3, 「送均師還」, p.351.

속에서 불교와 접했을 것이고, 시에 불교적인 선이 詩化된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山色空庭得	산빛은 빈 뜰에 가득차있고 <sup>25)</sup>
花枝細雨香	꽃가지는 가랑비에 향기로워라
客中清興味	나그네살이 중에 맑은 이 흥치
寄傲一窓涼	서늘한 창가에서 오만 부리네 <sup>26)</sup>

텅 비어 있는 절 마당에 인공적인 것이 전혀 없는 자연그대로의 산 빛이 가득 차있다. 그 곳에 가랑비까지 내려 만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니 꽃향기가 더욱 멀리까지 난다.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풍경 속에서는 나그네조차도 맑은 흥취를 느낀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는 어찌면 정해짐이 없는 행로에 지쳐 있다가 텅 비어 있으나 가득 차 있는 자연경관에 흥취를 느낄 수밖에 없다. 나그네도 흥취에 겨워 창가에서 교만함을 부러볼 수 있는 정도라니 얼마나 맑은 곳인지 알 수 있다. ‘傲’는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남쪽 창에 기대어 교묘한 마음을 부치나니, 겨우 무릎을 들여놓을 작은 방도 편안함을 알겠도다.[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에 보이는 바, 여기에서 이송인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合一의 경지를 도연명처럼 느끼고 있다.

山北山南細路分	산 북쪽 산 남쪽 오솔길 나뉘는 곳
松花含雨落繽紛	송화가 비 머금고 어지럽게 떨어지네
道人汲井歸茅舍	도인이 물 길어 텃집으로 돌아가니
一帶青煙染白雲	한 줄기 푸른 연기 흰구름 물들이네 27)

25) 杜甫의 시 「山頭南郭寺」의 “빈 트랙에서 얻었나니 늙은 나무요, 맑은 내가 한 고을을 차례로 흘러가네.[老樹空庭得 清渠一邑傳]”라는 구절이 절창으로 회자되고 있다. 『杜少陵詩集』권7, 「秦州雜詩二十首」, 이송인 지음, 이상현 옮김,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재인용.

26) 『陶隱集』권3, 「題僧舍寓軒」, p.286.

27) 『陶隱集』권3, 「題僧舍」, p.391.

산의 남북이 나누어지는 오솔길에 절이 있다. 속세와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중에 비에 젖은 송화가 흩날리고 한 도인이 물을 길어 떠 집으로 돌아간다. 소박하고 검소한 거처에서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 ‘靑煙’은 소나무의 푸름과 연결되어 청량함을 더해준다. 하얀 바탕의 구름에 푸른 연기가 물든다. 송화가 떨어지는 것, 도인이 돌아가는 걸음, 피어오르는 연기는 모두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움직임이 閑靜한 분위기를 더해준다는데 이 시의 묘미가 있으며, 동양화에서 이른바 여백의 미마저 느껴진다고 하겠다. 수도승의 맑은 일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읊고 있어서 작자가 염원하는 정신세계를 엿 볼 수 있다.

朝來牧何處	아침에는 어디에서 소를 치시나
春草彌望煙空濛	아지랑이 아른아른 봄풀이 눈에 가득한 곳
暮來牧何處	저녁에는 어디에서 소를 치시나
斜陽遠映長林紅	지는 햇빛이 긴 수풀에 멀리 붉게 비치는 곳
朝朝暮暮牛性馴	아침마다 저녁마다 소의 성품 순화되니
鞭索終無毫髮功	채찍과 고삐를 끝내 써먹을 길이 없네
道人拍手笑呵呵	도인은 손뼉 치며 곱곶곶 웃으면서
笑殺三十年前事	삼십 년 전의 일을 우습게 여기시겠지만
或時落地犯苗稼	혹시 땅에 떨어져서 벼 싹을 또 망칠 경우
如今露地誰牽鼻	지금같은 노지로 누가 코 꿰어 잡아끌까 <sup>28)</sup>

尋牛圖를 연상하게 하는 시이다. 尋牛圖<sup>29)</sup>는 처음 禪을 닦게 된 동자가 본 성에 비유되는 소를 찾기 위해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소를 발견하고 길들인 뒤에, 그 소를 타고 집에 돌아왔으나 다시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속세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0)</sup>

28) 『陶隱集』 권1, 「題牧菴詩卷」, p.68.

29) 문동석,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 상상박물관, 2008, pp.144-148.

①尋牛 ②見跡 ③見牛 ④得牛 ⑤牧牛 ⑥騎牛歸家 ⑦忘牛存人 ⑧人牛俱忘 ⑨返本還源 ⑩入塵垂手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넣어 道를 찾아 떠나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준다. 소를 찾아 떠나는 동자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아지랑이가 아른아른하듯이 아직은 수행자가 禪이 무엇이고 本性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저녁이 되니 지는 햇빛이 긴 수풀에 멀리 비취 만물이 제 모습을 다 드러내듯 햇빛이 비취는 곳에 소의 발자국이 어렴풋이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소를 길들이니 소의 성품 곧 인간의 본성이 순화된다. 三毒(貪, 嗔, 痴)의 때를 다 씻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소를 길들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채찍과 고삐는 필요가 없어진다. 도인은 손뼉 치며 깨달음을 얻은 호탕한 웃음을 꺾꺾 꺾 웃는다. 마지막 구에 ‘露地’는 ‘露地白牛’라는 말로 번뇌 망상이 없는 청정무구한 경지를 말한다.

이승인은 牧庵이라는 스님의 시권에 써준 시에서 스님의 이름을 통해서 심우도의 ‘牧牛’로 연결해서 목암 스님의 이야기로 전개해나갔다. 이제 어엿한 승려로 깨우침을 체득한 스님이 되었기에 수행과정을 심우도 그림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심우도를 한 폭 한 폭 따라가듯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독자 역시 번뇌에서 벗어난 느낌을 지니도록 잘 그려 놓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생구도의 당부와 경계까지 잊지 않고 있다.

睡菴認破本來眞	수암 본래 진면목을 깨달은 분이라서
不是尋行數墨人	언어 문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닐 텐데
安用區區印經卷	어째서 구구하게 경권을 찍어나나
止啼黃葉未爲珍	잠시 울음 달랜 황엽 귀할 것이 없으려면

曹溪一味豈言傳	조계의 일미를 어찌 말로 전하리오
微笑拈花亦偶然	염화의 미소도 저절로 된 것일 뿐
好向武陵橋上看	무릉교 위에서 보는 경치 얼마나 좋소 <sup>31)</sup>
山光水色蔚藍天	산빛과 물빛이 쪽빛 하늘에 영겼으니 <sup>32)</sup>

30) 문동석,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 상상박물관, 2008, pp.144-148.

31) 해인사 동구(洞口)에 무릉교가 있다.

수암을 두고 도를 깨친 분이라고 높이면서 은근히 놀리고 있다. 不立文字를 표방하는 禪宗의 입장에서는 敎宗에서 중시하는 불경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에도 선승인 당신이 어째서 경전을 짚어 내는가하고 물음을 던졌다. ‘止啼黃葉은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가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속여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黃葉은 일시적인 방편이다. 선종에서는 부처의 8만 4천의 법문을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해인사에서 經을 짚는 것을 黃葉에 비유하여 敎宗에서 중시하는 것을 선을 하는 스님이 불필요하게 한다고 놀리는 것이다.

둘째 수에서 ‘曹溪는 禪宗을, ‘一味’는 一味禪을 가리킨다. 일미선은 不立文字의 頓悟를 목표로 참선하는 것을 말한다. 참선하여 화두를 깨치는 것은 석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拈花示衆했을 때 가섭이 미소 지었던 것처럼 以心傳心으로 느끼는 것이지 말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선적 경지를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맑은 세계로 그리면서 자신도 그 경지를 느껴 알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雪嶽上頭雲上人	제일 높은 꼭대기의 운 스님은
江湖萬里不羈身	강호 만리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신대
逢場作戲 <sup>33)</sup> 君家事	장소따라 장대쓰기 스님 집안 전유물인데
故向陶齋乞句類	뭇 때문에 도재에게 자꾸 시구 청하는고 <sup>34)</sup>
綠葉低簷暑氣微	푸른 잎새 처마에 드리워 더위도 약간 수긋
寺樓終日澹忘歸	절 다락에서 종일토록 담박하게 갈길 잊네
烹茶享客求題壁	차 달여 대접하고 벽에 제할 시 구하니

32) 『陶隱集』 권3, 「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戲呈」, p.389.

33)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자유자재로 선가(禪機)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장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유희를 펼친다.[竿木隨身 逢場作戲]”라는 선가(禪家)의 말이 있다. (『景德傳燈錄 道一禪師』) 이승인 지음, 이상현 옮김,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재인용.

34) 『陶隱集』 권3, 「題雲上人雪岳詩卷」, p.341.

却笑居僧未息機      우스워라 스님도 기심(機心) 쉬지 못하다니<sup>35)</sup>

위의 두 수 「題雲上人雪岳詩卷」와 「題神孝寺祖師房」는 승려들이 이승인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매일 아침이면 모였다 곧 흩어지는 구름처럼 雲上人은 어떤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스님이 이승인에게 시구를 청한다. 둘째 수에서도 차를 대접하고 도은에게 벽에 걸어 놓을 시를 지으라고 청한다. 푸른 잎 그늘에 더위가 가셔진 절 누각에서 차를 마시며 종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에서 스님과 한정환 속에 빠져 그 세계 속에 하나 된 듯 그려 놓고 있다.

대접하고 줄때는 받을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득도한 승려의 모습인데 機心을 버리지 못하고 시를 지어 달라 한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승려들의 세계를 먼저 그려서 그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그런 승려들이 시를 지어달라고 한다는 말로 은연중에 자신의 자부심도 드러내고 있다. 이승인은 이 시를 통해 스님이 禪으로 이론 경지와 정신세계를 자신의 시적세계와 동일시하고 싶은 의식을 보여준다.

蘿衣百納已忘形	蘿衣 백납 이미 형체를 잊었으며
悟道年來輟誦經	도를 깨친 그 이후엔 독경읽기 그만두네
禪榻落花春寂寂	선탑에 꽃잎 지는 고요한 이 봄날
松風和雨生茶餅	솔바람 속 비내리고 차 주전자 끓는 소리 <sup>36)</sup>

蘿衣는 칩덩굴의 옷이라는 뜻으로 보통 隱者의 복장을 가리키며, 百納은 백번 꿰맨 누더기 승복을 말한다. 차림새가 누추하고 물욕을 버린 스님이다. 참선을 하여 자신을 잊은 무아의 경지에까지 올라간 스님이다. 깨달음에 이른 이후에는 독경도 쉬고 있다. 경을 읽는 행위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이기 때문이다. 참선하는 걸상위에 꽃잎이 떨어지고 주변은 고요하다. 차

35) 『陶隱集』 권3, 「題神孝寺祖師房」, p.405

36) 『陶隱集』 권3, 「題神孝寺祖師房」, p.355.

끓는 소리와 솔바람에 빗소리가 더욱더 고요한 분위기를 더한다. 꽃이 지는 봄날에 비바람마저 고요하게 느껴지는 스님의 선방에서 느끼는 禪趣를 자연의 청정세계로 그려 놓는 작자적 능력으로 자신의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 IV. 맺음말

불교는 고려의 정치·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신학문인 성리학이 유입되었으나, 여전히 당시 사대부의 삶과 문학에 불교의 영향이 지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사대부 문학의 중심에 있는 이송인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문을 창작했다.

이송인은 성리학을 공부했으나, 독실한 불교신자인 모친의 훈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했고, 이 영향으로 성리학에 경도된 여타 사대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배불론을 펼치지 않았으며, 시종 불교에 호의적인 관점을 지녔다. 이송인이 남긴 70여수의 불교시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송인의 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불교는 소외되거나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러한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송인의 불교시를 살핍으로써 그의 삶과 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서술의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송인의 불교시를 고찰하기 전에 그의 불교관을 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교에 호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어 속에 불가의 언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송인은 불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양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불교를 비판한 작품도 있었는데 이는 불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자정 능력을 잃어 버린 교단에 대한 비판과 불교의 철리에 침잠하기보다 맹목적 신앙에 주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한 것에 그치고 있었다.

이송인은 불교를 통해 삭막한 현실에서 벗어나 탈 속세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높은 정신경계에 노니는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자신 역시 그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승인의 마음은 탈속을 지향하되 고려를 부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으므로 탈속 추구의 의지가 강했지만 사대부적 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어서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승인의 탈속 지향적 작품을 살핀 결과, 속세를 벗어난 세계를 동경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탈속을 도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 불교시에는 현실과의 갈등, 불교의 철리, 선적인 정신경계 등 다양한 주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였다. 이승인은 승려와의 교유시와 자연시를 통해 당시 고려 말 사상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선종의 사상을 드러내었다. 이심전심,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종의 사상과 청정한 정신경계를 수행하는 승려의 모습이나 깨끗한 자연 풍광으로 묘사해 냈다.

이렇게 보면 이승인은 고려 말 조선 초 사대부의 문학작품에서 산견되는 ‘外儒內佛’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겉으로 성리학을 전공했고, 유학적 가치로 세상을 경륜하려 하면서도 내면에는 불교적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불교적 이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禪’이라고 표현했는데, 보다 자세한 논의는 지면을 달리하여 서술해야 할 것으로 본다.

<參考 文獻>

- 이승인, 『陶隱集』(한국문집총간 6집)
- 이승인 지음, 이상현 옮김,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四庫全書 電子板』, 『宋詩鈔』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조선어문학회, 1930.
- 김동욱, 「도은 이승인의 생애와 문학세계」, 『어문학연구』제8집,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1999.
- 김재욱(제1저자), 송혁기(교신저자), 「도은 이승인의 佛敎詩 연구 - 승려와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 문동석, 『문화로 보는 우리 역사』, 상상박물관, 2008.
- 양진조, 「도은 이승인의 시세계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정화, 「도은 이승인의 누정시연구」, 『한국사상과 문화』제3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 임종욱, 「도은 이승인의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연구』11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8.
- 정종대, 「이승인의 한시에 대하여」, 『선청어문』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9.
- 조재억, 「도은의 시와 隱逸性」, 『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1988.
- 최광범, 「도은 이승인 시의 품격」, 『어문논집』44, 안암어문학회, 2001.
- 하정승, 『도은 이승인 시의 품격 연구』, 태학사, 2001.
- \_\_\_\_\_,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한국한시연구』 21집, 한국한시학회, 2013.

### Abstract

*A Study on Doeun Lee Soong-in's Buddhist Poems*  
/ Kim Keong-mi\*

As the state religion of Goryeo, Buddhism played a dominant role in all aspects of its society. Even after the founding of Jose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Anti-Buddhist Policy (抑佛政策) was enforced over an extended period due to the persistence of Buddhist influence. Soong-in Lee, a late-Goryeo writer, also known by his pen name, Do-eun, was a sadaebu (士大夫; literally, scholar-official) who had studied Confucianism; nevertheless, he was restricted by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From a young age, Lee was disciplined by his mother who engaged in Buddhist chanting every morning, studied in a Buddhist temple, and established friendships with Buddhist monks; he had naturally come to embrace Buddhism throughout his life. Such experiences had a certain influence on Lee's literature. This is evident in the inclusion of numerous Buddhist poems in Doeunjip (陶隱集; literally, Collection of Literature Works by Do-eun).

Lee had strived to preserve Goryeo. At the age of 46, he was killed in a plot by Do-jeon Jeong, who was his political opponent as well as a friend. Having had lived in a time of political turmoil and been murdered at a relatively young age, Lee's literary works are limited. In Doeunjip, there are 337 topics and 446 poems, 70 of which are Buddhist poems. While this is not a large number, studying the Buddhist poems composed by Soong-in Lee—who was renowned for his poetry—merits considerable significance as it allows one to observe the entirety of Lee's poetry and ideas. Furthermore, this study can b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houghts and literary trends of scholars of the time, who were known as the “shinjin sadaebu” (新進士大夫; literally, rising

---

\* Sungshin Univ. / dkd-77@hanmail.net

scholar-officials).

Lee's Buddhist poems included in Doeunjip can be classified into friendship poems with Buddhist monks, poems included in Buddhist monks' poetic works, and those that meditate on the scenery at Buddhist temples. In this study, traces of Buddhism embedded in Lee's views and poem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ose poems that "yearn for unworldliness," which were composed as a means to resolve the tension from repeated exile and reinstatement, and those that "reveal religious doctrine or narrate a virtuous Buddhist world," which were composed by being purely immersed in Buddhism.

As it is commonly known, Seon (禪; Korean variant of Chan Buddhism) was at the core of Buddhism in the late-Goryeo dynasty. Consequently, Seon-oriented preferences are also apparent in Lee's Buddhist poems. Although some of his works are critical of Buddhism, such criticisms are confined to the axiomatic aspect of Buddhism; throughout most of his works, he appears favorable towards Buddhism and he is shown to affirmatively accept Buddhist teachings. It was on these grounds that Lee sought to overcome his conflicts and situations in reality, by pursuing unworldliness and likening the clear mind of a Buddhist monk to his own.

**【Key words】** Doeun, Soong-in Lee, Moralism, Doeun's Buddhist Poetry, Unworldliness Poetry.

투고일 : 5월 15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